

전주시, 제1회 주거복지대상 수상

전국 최초 주거복지 전담조직 신설·탄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높은 평가 받아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주거복지협의체 등 탄탄한 민·관협의체를 구축해온 전주시가 정부가 수여하는 첫 주거복지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전주시는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한 기초 지자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총 87곳의 지자체 중 지역별 특화 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정량·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주시가 영예의 대상에 선정됐다.

전주시가 대상을 수상한 것은 주거권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판단 하에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1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전담조직인 주거복지과를 신설한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우면서 주거복지협의체 등 탄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시는 취업준비생과 예술인을 비롯한 청년과 노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안산동 청년 셰어하우스 57가구 △팔복동 계층통합형 주택 10가구 △중화산동 여성안심 사회주택 15가구 △효자동 청년 주택 17가구 △삼현동 마을공동체 연계형 주택 37가구 △서서학동 청년예술인 주택 18가구 등 총 88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또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접 공급부터 운영까지 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힘썼다. 주로 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이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긴급 거처인 희망홈 케어 급급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공해왔으며, 새로운 거처 마련이 힘들거나 이사비용이 부족한 가구, 체납으로 난방·전기가 단절된 가구 등에는 긴급임대료와 이사회, 주거관리비를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전지역 35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단독주택 관리사무

소 역할을 수행하는 해피하우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 보수 서비스, 주택 리모델링, 건축 상담, 공구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서비스 연계, 정책 모니터링, 정책 개발 등을 위해 24개 민간단체 주거복지 네트워크와 20명의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LH 전북본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주거복지협의체를 구축·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도 갖췄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추는 데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분야 전문가와 LH 등 유관기관, 주거복지 활동가 등과 협력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주거복지 박람회 개최 전주시와 LH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는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주거복지 분야로는 최초로 '2021 전주 주거복지 박람회'를 개최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홍보하고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개회식과 시상식,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 주거복지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네팔 딜 쿠마리 바라히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온라인 시상식

네팔 딜 쿠마리 바라히 · 이탈리아 엘 펠제 타지키스탄 쉬린벡 다블라마마토브 수상

네팔의 전차 제작 장인인 딜 쿠마리 바라히(Dil Kumar Barahi), 이탈리아의 곤돌라 장인 단체인 엘 펠제(El Felze), 타지키스탄의 전통 지식을 전승하고 있는 쉬린벡 다블라마마토브(Shirinbek Davlatmammadov)가 올해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받았다.

전주시는 7일 오후 9시 '제3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온라인 시상식'을 열어 세계 곳곳에서 각국의 무형유산 보호와 발전에 힘써 온 이들 개인·단체에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줬다.

올해의 대상 수상자 중 딜 쿠마리 바라히는 네팔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축적해 온 장인으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수련하며 전차 제작 기술을 이어온 인물이다. 현재 네

팔의 전차와 전차 제작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전승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엘 펠제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설립된 곤돌라 제조 장인들의 단체로, 보트·노·포플라·가구·장식 및 액세서리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로 구성돼 있다. 쉬린벡 다블라마마토브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지식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타지키스탄의 전통의 학 관련 기록화 및 교육활동, 지역 언어의 활성화 등에 힘써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발전에 기여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옷칠장 의의식 보유자가 제작한 상패와 함께 수 상자별로 상금 1만 달러가 수여된다. /김윤상 기자

국제인권포럼서 '전주형 인권정책' 소개

김승수 전주시장, 전세계 인권도시 대표해 발표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인권포럼에서 전세계 인권도시들과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주형 인권정책을 공유했다.

김 시장은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4일간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2021년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하 '포럼')의 첫날 전체회

의 1세션에서 '가장 인간적인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주형 인권정책을 소개했다.

김 시장은 "더 공정한 미래 구축을 위한 인권원칙 - 지역 정책에서부터 집단행동까지"라는 주제의 전체회의 1세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와 생명, 인권을 위해 추진한 △착한임대인운동 △하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

급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여성의 인권, 도시의 기억과 시간의 관점에서 변화시킨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인권의 중요성과 도시의 가치를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유네스코 본부, 광주광역시 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 주최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인권위원회(UCLG-CISDP), 광주국제교류센터,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

인권포럼은 지난 2011년부터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으로, 국내외 인권도시 관계자, 인권기구 및 단체, 인권운동가, 인권행정가,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인권네트워크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시민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도시이며, 우리에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면서 "전주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상상하며 연대의 힘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덕진 청소차 차고지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가 7일 덕진 청소차 차고지 이전·신축 사업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은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송천동2가 이전·신축 부지에서 현장을 둘러보며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덕진 청소차 차고지 이전·신축은 전주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청소차고지 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 청소행정의 효율과 환경관리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건

축면적 5,585㎡ 규모(휴게시설 건축면적 132㎡)로 총 사업비 13억1500만 원을 들여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청소차 차고지 이전은 시 중심부에 있던 시설을 외곽으로 옮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휴게시설 신축으로 환경관리원의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거주 외국인 대상 9~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에서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18세 이상 외국인 중 코로나19 백신 1차 미접종자로, 연령에 따라 양면백신, 모더나백신 또는 화이자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만 30세 이상인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1회로 접종이 종료되는 양면백신을 맞게 된다. 또, 만 30세 미만인 199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에게는 모더나백신 또는 화이자백신이 투여된다. 만 30세 미만 접종자의 경우 3~4주 후 동일한 백신으로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등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면 되며, 미등록 외국인 또는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연락처만 있어도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건강한국 실현에 기여하는 세계 수준의 식품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은 창의적 식품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 ① 식품 기능성 규명, 신소재·신공정 연구개발
- ② 식품 저장·유통·안전성 기술 연구개발
- ③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개발
- ④ 식품 분석, 정보, 표준화 및 기반조성 연구개발
- ⑤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 위탁
- ⑥ 식품 저장·유통·안전성 기술 연구개발
- ⑦ 전문인력 양성, 기술정책 수립 지원, 시험평가, 인증 등